



VON

MAY 2015
VOL.35

Special.

THE
QUESTION
ABOUT MAMA



...>
사진으로 쓰는
동시대 인류학

ANTHROPOLOGY --- OF --- OURSELVES

...>
Simon Roberts

영국 출신의 사이먼 로버츠 Simon Roberts는 대학에서 공부한 인문지리학을 바탕으로 동시대 삶의 양태들을 관찰해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인의 삶에 관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여가생활을 깊이 있게 조망한 'We English' 시리즈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최근 그동안의 작업을 정리하는 성격의 사진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사이먼 로버츠의 작품세계와 작업과정에 관해서 서면 인터뷰를 나눴다.

(편집자 주)

01.

최근 기존의 작업들을 모아 책을 만든다고 들었다. 어떤 작업들이 수록되는가?

제목은 『Landscape of Innocence & Experience』로 지난 10년 동안 작업한 풍경사진들을 모았다. 책에는 2004년 러시아를 여행하며 촬영한 'Motherland' 시리즈를 시작으로 영국의 전형적인 풍경들을 찾아다녔던 'We English' 시리즈, 2010년 영국 총선을 기록한 'The Election Project'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록한 'XXX Olympiad' 시리즈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경제 상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근작 'Let This Be A Sign' 시리즈와 영국 내 항구도시들의 변화과정을 재조명한 'Pierdom'도 실린다. 책은 지난 작업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새로운 편집을 통해 사진 속에 드러나는 공간과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2016년에 출간될 이 책은 스스로 내 작업 속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재발견하는 조사과정이라 할 수 있다.

02.

업급한 작업들 중에서 초기작인 'Motherland' 시리즈는 냉전시대의 심장부인 러시아를 다루고 있다. 작업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정하고 작업에 임했다. 첫째는 '내가 모르는 러시아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예전에 방문해서 이미 알고 있는 러시아가 아닌, 깊숙한 산간 지역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족을 찾아 기록하고자 했다. 다른 목표는 '완벽하게 계획되지 않은 여행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이동경로의 큰 그림은 그렸지만,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장소나 사람을 기록할 때 시간적으로 고정관념이 담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숙소도 호텔을 피했고, 주로 홈스테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갔다. 그들은 때로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을 내게 소개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의 일터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그들이 내게 열어준 창문을 통해 나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들의 눈을 빌려 새로운 러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03.

'We English', 'XXX Olympiad', 'Pierdom'
'The Election Project' 시리즈 등 지속적으로
영국인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그 중에서 'We English' 시리즈는 작가의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나?

'We English' 시리즈는 영국인들의 공통된 관심
사와 행동양식이 드러나는 장소를 담은 초상이
다. 여가생활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영국의 문
화와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이미지를 찾고자 하
였다. 영국의 여가와 문화생활 이면에 가려진 일
상의 풍경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각계각층
의 여가와 취미 생활 속에 숨겨진 영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양식과 공감대를 이루는 코드들
이 담겨있다. 나의 조국인 영국의 정체성을 이루
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 이
뤄낸 작업이다.

04.

'Pierdom' 시리즈에는 영국만의
흥미롭고 독특한 장소가 등장한다.
장소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나?

'영국의 오늘'을 있게 한 산업혁명의 흔적들을 발
견할 수 있는 항구 휴양도시와 그 주변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산업발달과 함께
발전한 항구도시는 이제 휴양도시로 변화했고,
이는 영국의 경제부흥과 그 쇠퇴를 그대로 반영
하고 있다. 이 장소들은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적
혜택이 처음 향유되던 곳이었고, 현재는 교통과
여가문화의 중심지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대
한 욕구가 오롯이 담겨있기도 하다. 결국 영국의
문화적 역사적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River Wharfe, Skipton, North Yorkshire, 27th July 2008, Series from We English
©Simon Roberts





Equestrian Jumping Individual, Greenwich Park, London, 8 August 2012
Series from XXX Olympiad ©Simon Roberts





05.

2010년 영국의 총선을 기록한 'The Election Project' 시리즈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을 시도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영국에서 인간 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발전시킨 조사방법인 '대량관찰(Mass Observation)'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작품화를 배제하고 온라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06.

최근작 'The Last Moment' 시리즈는 기존의 작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과 실험이 돋보인다. 일상의 사건과 역사의 파편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다룬 영국의 국제 뉴스들을 모아 스캔 한 후 나만의 시선과 기준으로 선별하고 분류했다. 뉴스 사진의 전체 이미지를 스캔하는 것은 물리적인 객관화 과정이라면, 반면 그 중에서 일부분만 서클 이미지로 노출시키는 과정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나만의 해석이 담겼다.

'코닥 모먼트(The Kodak Moment)'라 불렀던 사진적 순간을 재현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과거 코닥이 주도한 아마추어 사진가의 양적 팽창과 사진산업 발달 그리고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람하는 이미지 생산과 정보의 문제까지 사진사적인 맥락과도 연관된 작업이다. [V]

글 | 허숙영(영국통신원)

허숙영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했다. 영국 리즈(Leeds) 대학교 파인아트 석사이자 2011 스웨덴 왕립예술학교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2012년 영국 더비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포토펬어 2009 주빈국 특별전>, <스텐 베리만 프로젝트 'The Bird Catcher'(서울진선갤러리, 2011)>, <The Darkness of Light(금산 갤러리, 2012)> 등을 기획, 진행했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스웨덴과 영국에서 작가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Motherland



'Motherland' 시리즈는 사회적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를 여행하며 작업이 이뤄졌다.

8×10inch 대형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들은 이후 여러 프로젝트들의 형식적 모태가 되었으며,
이국을 경험한 작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향인 영국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Taxis cross the frozen Lena River, Yakutsk,
Far East Russia, November 2004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Camping with Sasha and Paval, Kamchatka Peninsula,
Far East Russia, October 2004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We English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Motherland' 시리즈의 촬영을 마친 후, 사이먼 로버츠는 새로운 시각으로

고향 영국을 바라보게 되면서 'We English'를 시작하였다.

1년 동안 영국의 전형적인 풍경들을 찾아 떠난 촬영 여행은 전작의 작업과정과 닮아 있다.

영국만의 고유한 풍경과 다채로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 풍경은 '영국다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담고 있다.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St George's Day Pageant, Scarborough Castle,
North Yorkshire, 26th April 2008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Derby Day, Epsom Downs Racecourse,
Surrey, 7th June 2008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사이먼 로버츠는 영국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는 작가로 선정되어 2010년 'The Election Project'를 진행하였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싶었던 작가는 아트워크와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방식을 접목시켰다.
대학에서 인문지리학을 공부한 작가의 인문학적 소양과 시선이 드러난다.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David Cameron, Conservative, Spelsbury,
6th May 2010(Witney constituency)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Polling station, Goodman Park, Slough,
6th May 2010 (Slough constituency)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Pierdom' 시리는 영국시민들이 주말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항구 휴양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다. 이 도시들은 과거 산업혁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한때 산업 발전의 영광과 경제 쇠퇴 이후의 그림자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해온 항구도시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Weston-Super-Mare Birnbeck Pier, Somerset, 2011
©Simon Roberts

Motherland

We English

The Election Project

Pierdom



Blackpool South Pier, Lancashire, 2008
©Simon Roberts